

# 아시아인권헌장, 인권 매뉴얼로 거듭난다

### 또인권단체협 개정 준비 모임...20주년 맞아 2018년 개정 5·18재단 '오월정신' 넘어 시대상·권역별 이슈 반영키로

‘아시아 인권헌장’이 선포 20주년만에 개정된다.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동남아·서남아 등 권역별 인권상황에 맞춘 인권헌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실천적 의미가 있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인권·평화·민주로 대표되는 5·18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 인권헌장이 선포 20주년을 맞는 2018년 개정을 목표로 개정논의에 들어갔다.

아시아 인권헌장은 지난 1998년 5월17일 5·18광주민중항쟁 18주년 행사에 맞춰 광주에서 선포됐다. 아시아적 인권상황을 토대로 한 아시아 최초 인권헌장이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담지 못한 아시아적 인권 현실을 반영하고, 억압받는 아시아 민중의 권리와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대상황이 달라졌고, 국가별·권역별 인권상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아시아인권단체협의회는 지난 15~16일 이틀간 네팸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아시아 인권헌장 개정 준비모임을 가졌다. 회의를 주최한 5·18재단은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매뉴얼로 기능하도록 헌장 개정을 제안했다.

5·18재단은 네팔(서남아)에 이어 태국(동남아), 스리랑카(남인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도 권역별 인권 상황에 맞춘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3개년 계획으로 연계를 짜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완성해서 2018년 5월 발표

할 계획이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최근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이행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아시아 인권헌장은 현장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아시아의 많은 인권활동가가 ‘5월 광주’의 여러 요소 가운데 각자 본받고 싶은 부분을 민주주의의 모델로 삼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헌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태풍 같은 강풍

### 광주·전남 피해신고 103건

주말·휴일 때이던 강풍으로 몰아쳤다. 순간 최대 초속 27.4m의 강풍으로 선박이 좌초되고, 가로수가 뽑히고, 간판이 날아가는 등 광주·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다.

17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7분께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한 버스정류장 인근의 가로수가 넘어져 정차 중인 이모(38·여)씨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이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옮겨졌으며 차량이 파손됐다.

이번 강풍으로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7시까지 광주 36건, 전남 67건 등이다. 가로수가 넘어지고, 간판·창문·지붕이 날아가는 피해였다.

전남 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어선 4척이 좌초·전복됐고, 2척은 피항 중 갯벌에 걸려 멈춰섰다. 이번 강풍은 신안 홍도에서 순간 최대풍속 27.4%를 기록했다. 여수 19.4%, 완도 16.1%, 광주는 12.4%로 집계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평동산단 불...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3시43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평동 2차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시꺼먼 연기가 치솟고 있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근로자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16일에는 진도군 울금기공영농법인 저온창고와 광양시 옥곡면 돼지우리에서 각각 불이나 소방서 추산 2억5000여만원, 1억5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박준영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준영 당선인의 무안 선거사무실을 지난 1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2개월 전에 같은 당 김도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인 측 관계자에게 전해졌는지, 김씨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선거 관련 활동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원외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달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한 뒤 4·13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려다가 통합했을 뿐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염전노예’ 악덕 업주 항소심서 집유

장애인 임금을 때먹은 일명 ‘염전 노예’ 업주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서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벌제(7500만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신안에 있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A씨에게 임금 4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4년간 피해자에게 준 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박씨는 A씨가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 속식 제공을 빌미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단체는 노동 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7  
해질녘 19:08  
달 뜨기 15:38  
달 지기 03:50

### 구름 낄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9/19	보성	구름많음	8/19
목포	구름많음	9/17	순천	구름많음	10/20
여수	구름많음	11/18	영광	구름많음	8/19
나주	구름많음	7/20	진도	구름많음	8/18
완도	구름많음	10/18	전주	구름많음	8/18
구례	구름많음	8/20	군산	구름많음	8/18
강진	구름많음	8/18	남원	구름많음	7/18
해남	구름많음	7/19	홍산도	구름많음	9/15
장성	구름많음	7/19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2.0	남서~서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0~2.5	남서~서	1.0~1.5

### 생활지수

주요	주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 주간 날씨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	☁	☁	☀	☀	☀	☀
8/21	11/21	12/21	9/22	10/22	10/22	10/23

## 광주 어등산서 60대 등반객 피살

광주 어등산에서 60대 등산객이 일면 식도 없는 남성이 휘둘러 흉기에 숨졌다.

광주경찰청은 17일 등산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5시 17분께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등산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65)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등산객들에 의해 병원에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어등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검거 당시 예비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용의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 같다. 김씨가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러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무안서 덤프트럭-버스 충돌

덤프트럭이 관광객을 태운 버스를 들이받아 40여명이 다쳤다.

지난 16일 오후 4시12분께 무안군 해제면 수암교차로에서 나온(48)씨가 몰던 24t 덤프트럭이 이모(56)씨가 몰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가 전복되면서 버스 탑승객 44명과 덤프트럭 운전자 나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명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탑승객들은 이날 신안 톨링 축제장을 방문한 뒤 전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무안=임동원기자 jdh@kwangju.co.kr

## 나주 실종 대학생 숨진채 발견

대학 신입생이 실종 나온 만에 학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14분께 나주시 대호동 대호 수변공원에서 A(19)군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에 나선 경찰 등이 발견했다.

A군은 지난 12일 밤 10시50분까지 대호동 한 음식점에서 같은 과 친구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연락이 두절돼 지난 15일 오후 5시5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A군은 당시 음식점에서 나와 500여m 떨어진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기숙사에는 복귀하지 않았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일시** : 2016. 4. 19(화) ~ 4. 26(화)

**내용** : 2017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일반 안전심사 및 5분 발언 등

**남원시의회**  
http://council.namwon.go.kr